

# 베트남, 반딧불사과에 반하다

## 무주군, 사과 13톤 수출

무주군은 지난 31일 무풍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 베트남에 보낼 무주반딧불사과 13t을 선적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유승열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동열 무주농협 조합장과 양승욱 구천동농협 조합장, 김석중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그리고 관내 사과농가 대표 등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무주군은 지난 31일 무풍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 베트남에 보낼 무주반딧불사과 13t을 선적했다.

이 자리에서 황 군수는 “해외에서도 무주반딧불사과의 맛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이 여세를 붙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대해 갈 수 있는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특히 베트남은 2년 연속 수출을 하며 주요 수출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곳인 만큼 무주반딧불 브랜드를 각인시키고 아울러 만족스러운 물량을 선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올 한 해 NH농협무역을 통해 총 30t을 베트남에 수출할 계획으로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무주

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과 함께 베트남을 방문해 2019 하노이 식품박람회(V&B)를 참관하고, 7~9일까지는 베트남 하노이 Aeon Mart, Mega Market 등 2곳에서 사과 시식을 비롯한 판촉 행사와 바이어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반딧불조합법인 관계자는 “무주반딧불 사과가 높은 당도와 단단한 육질, 그리고 월등한 품질로 베트남

국민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라며 “베트남을 가장 큰 시장으로 해외 판로를 넓혀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지난해부터 베트남을 비롯한 홍콩 등지에 사과를 수출해왔으며 올해는 지난 5월 홍콩에 사과 11톤을 선적한 이래 12월까지 총 41톤을 수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한누리전당서

장수군은 지난 31일 육군 제773부대 1대대와 장수경찰서, 무진장소방서, 장수군외용소방대 등 11개 관계기관 및 단체와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합동 중점훈련을 한누리전당에서 실시했다.

안전한국훈련 현장훈련은 실제 재난 발생시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연계, 재난확대상황 예측에 따른 조치사항 토의, 기관 및 부서별 임무·역할 숙지 등 재난 대응 태세 점검을 위한 것으로, 실제상황을 가정

해 실전에 도움이 되는 훈련을 위해 매뉴얼 점검 및 구체적인 시나리오 작성을 기반으로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관계기관장과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장수읍 일원 지진으로 인한 건물붕괴와 대형화재 발생' 가정 하에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으로 나눠 진행됐다. 토론훈련은 군청 회의실에서 장수군 실·과·소장, 관계기관 관계관 등 13개 협업부서로 구성된 장수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기반으로 상황판단회의, 초기 대응 태세 점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훈련을 했다.

현장훈련은 토론훈련을 기반으로 훈

련메세지 전달, 지진발생, 재난위험경보발령, 상황전파, 신고 및 대피, 대응체계 구축,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구조활동, 매물자 구조, 지휘권 이양, 피해시설 복구 및 수습, 상황종료 등 실제 사고 발생 현장에 입각한 대응 훈련을 펼쳤다.

이홍대 안전재난과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더욱 더 강화하고 긴급구조 기관과 관계기관, 단체의 공조체제를 공고히해 예기치 않은 재난 상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 상전면, 합동소방훈련 실시

진안군 상전면(면장 송준섭)과 무진장소방서 진안 119 안전센터는 지난 30일 상전면사무소 광장에서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상전면사무소 2층 주방에서 가스레인지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화

재신고·전파, 초기소화, 대피, 응급처치 등 훈련이 실천처럼 펼쳐졌다. 이어 소형 소화기 사용방법 교육과 함께 시연이 이어졌다.

상전면 합동소방훈련은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

복구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송준섭 면장은 “이번 훈련을 계기로 화재 발생에 따른 신속한 초기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화재진압 대피훈련을 통하여 실제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고, 가을철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

## 군임영위료휴가 도입·퇴직금 20% 가산 등

장수군과 전국공공운수노조장수군공무직지부(지부장 박창만)는 지난 31일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조금현 행정지원과장, 박창만 노조지부장을 비롯해 간부공무원, 노조임원진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공무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내용은 근로자 사기 앙양을 위해 ▲군임영위료휴가 도입, ▲산재로 손지 또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20% 가산, ▲퇴직 공무원에 대한 공로패 수여 등이다.

또 미세먼지로 인한 근로자 건강 문제를 고려해 휴교를 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극심한 경우에는 노사

가 협의하여 실외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

군측 교섭대표인 조금현 과장은 “공무직 근로자들이 보다 일하기 좋은 근무조건에서 노사가 함께 힘찬 장수 건설에 매진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창만 지부장은 “근로 환경·처우 개선,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해 장수군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노사화합과 상생을 향한 합의”라고 말했다.

이번 공무원 단체협약은 지난 4월 노조 측에서 장수군에 요구안을 제출한 이후, 3차례의 실무교섭을 통해 6개월만에 이룬 합의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역 매아리

## 무주군의회, 베트남 공무 국외출장

무주군의회(의장 유승열)가 11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 베트남으로 공무 국외출장을 떠나기 위해 공무원의 출장 심사위원회 심사를 마쳤다.

지난 31일 무주군의회 상임위원실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7명의 공무원 출장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출장의 필요성과 적절성, 출장국과 출장기간의 타당성, 출장일정 및 출장경비의 적절성에 대해 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일정으로는 1일차에 무주반딧불 조합 공동사업법인 사과, 포도 등의 농산물을 출품 할 예정인 베트남, 하노이 식품 박람회'에 무주군 집행부 농협 무주군지부, 무주농협 등과 함께 참관하여 베트남 시장 거래선 확보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 할 예정이다.

2일차에는 우리군 농가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 및 농협과 함께 하노이 소재 대형마트 2곳에서 15일간 진행되는 판촉행사인 '무주반딧불 사과 베트남 프로모션'에 참석한다.

3일차에는 하노이 주재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심도 있는 면담을 통해 베트남 진출 우리군 기업현황, 수출동향 등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도출하여 시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유승열 의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과 정책 등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의 3.1만세운동과 항일의식 돌아 본다

## 8일 '진안고원치유숲' 인문학치유프로그램 진행

3.1만세운동 100주년이 저물어간다. 진안에서도 가열찬 항일운동이 일어났다.

이에 '진안고원치유숲' 인문학치유 프로그램 일환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고장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정신을 일깨우는 일이다. 힐링의 출발이다.

오는 8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진안군 정청에 위치한 진안고원치유숲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되며 자

연식사가 제공된다.

누구나 무료로 참석가능하며 토론자는 김종록 작가,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부장, 이용업 국사편찬위원회 지역사회조사위원, 최규영 전 진안문화원장이며 교육계와 지역 활동가들이 참여한다.

# 무주, 안성채종단지 벼 보급종 149톤 수매

## 지형·기후 잘 맞아 품질 우수

무주군은 최근 국립종자원 전북지원과 함께 2019년 무주산 정부 보급종 벼(해답쌀) 수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정부 보급종 벼 수매 물량은 발아실험 등 샘플조사 결과 건조율 15% 이상, 발아율 85% 이상의 기준을 통과한 벼 149톤(187포/800kg)으로, 국립종자원에서부터 원종을 인수받아 안정면 일원(20농가)의 벼 채종단지(20.5ha)에서 재배한 것이다.

군은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1천 2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종자소독을 비롯한 생육 중 병해충방제 등을 지원해왔다.

무주농업기술센터 이용기 친환경기술팀장은 “조생종인 운광벼가 공공비축미에서 제외되면서 중만생종 위주로 재배를 해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2020년 공공비축미로 지정된 해답쌀은 무주지역의 기후와도 잘 맞아 최고 품질의 조생종 생산과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답쌀은 2020년부터 무주, 진안, 장수 지역에서 공공비축미로 지정된 조생종 품종으로 밥맛이 좋고 도열병과 줄무늬잎마름병 등에도 강해 농가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장수=고관호 기자

##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 이광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